

비판사회학 소식지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한 해를 돌아보며: 학회장 퇴임사

■ 백승욱
(회장/중앙대)



나중에 되돌아보더라도 학자로서 저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아마 이 비판사회학회장을 맡았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30여년 전 비판사회학회의 전신인 산업사회연구회에 대학원생 연구팀으로 처음 비판적 연구자 공동체와 관계를 맺은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제법 중견학회가 된 비판사회학회를 한 해 동안 끌어나가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학회는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갈 수 있는지, 개인 연구자로서 저는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연구자 동료들과 어떤 상생의 관계성을 발전시켜야 하는지가 지난 한해 동안 서로 얹혀서 한 번에 풀기 어려운 질문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단편적 회상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걸어온 궤적에 대한 성찰 없이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도 수월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사회학회의 강점은 서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판의 큰 흐름 속에 횡적으로 사유를 확장하는 연대의 노력을 해갈 수 있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비판적 사유를 버려온 종적인 역사에 자신을 위치지우려 한 끝없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면 계속)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랬지만 학회를 맡으면서도 제가 지키고자 했던 목표는 선배들로부터 배운 실천인 “좋은 선배되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되기도 아닌 좋은 선배되기란, 자신의 질문이 있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후배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거론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는 김진균 선생 및 선배들에 대한 기억을 회장이 된 후 굳이 언급했던 것은 좋은 선배되기의 길을 걸었던 분들의 기억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선배들의 훌륭한 실천의 일부를 따라가 보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판사회학회가 일하러 불러온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버리는 플랫폼이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두 가지 일에 중점을 두어보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학회의 주요 활동을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장님의 헌신으로 가을 학술대회에서 그런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후학들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쏟아보려고 한 것이고 여름의 비판사회학교가 좋은 성과로 끝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사회학회가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허브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판사회학회를 더 치열한 논쟁의 공간으로 되살려보고 싶은 욕심도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 자본주의라는 질문을 체계의 분석과 역사-제도적 분석이라는 이중 서술로 발전시켜 가는 동시에 한국에서 사상사의 부재라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생각에 대해서도 좀더 함께 논의해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일년을 덮어 거의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회원들 사이의 소통의 기회도 제약되었습니다. 아쉬움은 이후 학회를 맡아 운영해가실 분들에 대한 기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비판과 이론의 무게와 힘이 약화해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비판사회학회를 통해 후배연구자들께서 비판의 힘을 살려가줄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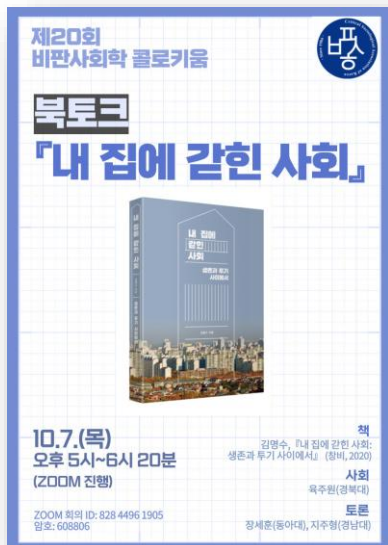
한 해 학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보도록 함께 노력해준 운영위원들, 특히 운영위원장님과 연구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부회장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학회 운영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박동열 운영간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끝)

〈제20회 콜로키움〉

북토크: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 김재형 (운영위원/한국방송통신대)



지난 10월 7일 개최된 20번째 콜로키움은 김명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저서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북토크로 이루어졌다. 김명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주택문제 등 부동산 문제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나갔다. 요약하자면 ‘자원동원형 공급연쇄’라고 하는 한국의 주택체계는 1980년대 후반의 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개발금융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주택의 위상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적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모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 중산층의 자가소유자들은 적극적 행위자로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주의적 생존주의 주거전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장세훈은 먼저 주택체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벗어나 체계 속에서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자들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원동원형 공급연쇄는 80년대 초에 완성이 되었다가 80년대 말에 점차 붕괴하게 됐고 IMF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체계의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중산층 육성 의도 여부, 자가소유 가구의 주거전략을 생존주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등의 질문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지주형은 ‘생존주의 전략’과 관련해 다양한 조건의 가구별로 다른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일반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 아예 전략이 부재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존주의라는 정치문화적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질적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리고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심화라는 현상을 되돌릴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면 계속)

김명수는 먼저 자원동원형 공급연쇄는 제도적으로는 80년대 완성되었지만, 90년대야 초반에 행위양식이나 합리성으로 발전하여 그 이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당대 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려 했으나 그것을 현실화할만한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만 있었고, 실제 정책은 대중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의 한계라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음으로 박찬중, 임운택, 백승욱, 육주원 등의 질문과 제안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박찬중은 자원동원형 공급연쇄에서 수요자들에게 선분양, 청약의 방식으로 건설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가소유자들에게 주택가격상승의 방식으로 자본이득을 제공해야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명수는 제도가 자본이득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문제시하지 않는 제도적 논리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육주원은 이 주택체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소외된 외부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 주택체제가 앞으로도 구조적 안정성을 안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했다.

이번 콜로키움의 토론은 매우 뜨거웠는데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명수의 연구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고 여전히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장세훈이 평가한 것처럼 이 책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주택의 사회학 분야를 개척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주택문제와 부동산에 대한 보수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대한 많은 비판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은 동의했다. 앞으로 비평사회학회가 이러한 비판적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1년 가을학술대회

〈비판의 재구성〉 후기

■ 김명수 (운영위원/서울대)



올해 비판사회학회는 특별한 선택을 했다. 가장 중요하고 풍성한 연례 행사 자리인 비판사회학대회를 예년과 매우 다른 형태로 개최했다. 물론, 매년 이어오던 학술논문 발표와 토론은 6개의 일반 세션(11.12, 금)을 통해 계속됐다. 그러면서도 학회는 운영위원들이 1년여에 걸친 내부 토의를 통해 마련한 ‘비판의 재구성’이라는 의제를 기획 세션(11.13, 토)에서 던졌다. 연구재단 지원 아래 굳어진 학술사업의 관행과 형식에서 거리를 두고 아울러, ‘장기 80년대’가 만들어낸 제도적 유산으로서의 비판사회학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집단화된 고민과 성찰의 장을, 무엇보다도 ‘40대’ 연구자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면서 마련해보려는 문제의식의 산물이었다(조은주 연구위원장, 전북대).

야심 찬 기획의 서막은 비판사회학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4인의 공동 발표가 열었다. 박찬종(광운대), 육주원(경북대), 김성윤(경희대), 김주호(경상국립대)는 민주화 이후 비판사회학이 ‘비평(criticism)’과 ‘비판(critique)’이라는 두 축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잃어버린 것은 ‘대상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해명’으로서의 ‘비판’이었다. 구조에 대한 인식이자 구조를 통한 설명으로서 ‘비판’이 사라지면서, 비판사회학 스스로가 은폐된 영역에 대한 폭로이자 부정적 요인의 들쭉임 ‘비평’에만 의존하게 되었다는 진단이다. ‘비판 없는 비평’의 대가로 비판사회학이 치른 것은, 다양한 현상들의 관계와 그것들이 공통으로 기반하는 한국 사회 전반의 성격(복수의 구조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을 규명할 종합적 설명력의 결핍이었다. 이에, 공동 발표자들은 ‘비판의 기획’을 되살리려는 집단적 작업만이 ‘비판’사회학(회)이 지향점으로 삼는 ‘비판’의 재구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의 도발적이고 선명한 제안에도 모호함은 있었다. 서동진(계원예술대)이 잘 짚었듯이, 비판의 대상이 될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복수의) ‘구조(들)’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겪는 경험적, 윤리적 측면을 구조적 설명 속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이들의 짧은 발표에는 담겨있지 않았다.

‘비판’적 사회이론의 가능성과 조건을 묻는 발표들이 뒤따랐다. 박치현(대구대)과 이정연(서울여대)은 학술장 안팎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회이론의 현 조건을 각기 검토했다. 박치현이 보는 비판적 지식(인)의 위기는 제도화된 지식생산의 장으로서 대학이 제 기능을 상실해가는 현실에서 새 세대 지식인들이 겪는 경제적, 구조적 ‘하방’ 현상으로 요약된다. 이와 견줘, 이정연은 감정을 동력으로 표출되는 대중들의 ‘반지성주의적 비판’을 초점으로 전통적 ‘비판’의 형식과 내용이 쓸모없게 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부각했다. (계속)

이들이 보는 현실 인식은 김주환(동아대)에게 이어졌다. 김주환은 비판적 사회이론이 처한 궁지의 원인이 시장에 의한 사회의 물화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물화된 사회를 바꿀 힘이자 '자유'를 향한 무기로서 '비판'의 새로운 구성을 요청했다. 종래의 인식 틀과의 단절을 꾀하면서도 또 어딘가에는 예전의 관성이 남아있는 것도 같은 이들의 시각에 예리한 반문이 제기됐다. 조문영(연세대)은 지식 생산자의 위치를 현실의 외부에 두는 인식의 잣대를 문제 삼으며, 현실에 연루된 채 지식 생산을 하는 비판자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오용(충남대)은 집단적 기획으로서 비판이 분석해야 할 대상이 무엇 인지를 되물었다. 비판의 대상은 결국, 더 복잡해지고 모호해진 사회적 총체성일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비판의 조직, 즉 '재구성'이 아니라 비판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퇴행과 그 안에서 지식인들이 행한 역할에 대한 비판과 토론도 이어졌다. 홍성태(고려대)는 진보적 사회운동이 변화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운동의 '분화'를 추구하는 대신, 87년 체제의 정치적 기획구조를 활용한 권력 동원의 서사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진보적 사회운동이 봉착한 위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운택(계명대)이 정리했는데, 급진성의 소멸, 국가 중심적 개혁 노선에 대한 몰두, 비판이론의 결여와 정치적 기획의 결핍 등이 그것이었다. 토론을 맡은 김동춘(성공회대)의 시선에서, 진보세력의 방향 상실은 노동 세력의 파편화와 더불어 민주화 이후 형성된 정치적 장이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비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사회 경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의 완성과 후기 민주주의적 요구를 끌어안을 운동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이희영(대구대)은 사회운동의 퇴행에 관한 앞선 '애도'적 평가들에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 주체에 대한 천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한 주체들과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기능할 수 있는 비판적 지식생산의 조건이, 세계 속 존재로서 연구자 자신이 처한 위치성에 대한 분명한 성찰로부터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사회학회 또한 민주화 이후 진행된 진보의 제도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연구재단이 조성한 학술 시스템 아래에서 제대로 된 비판의 터전으로 기능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천착할 필요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추지현(서울대)의 발표에서도 나타났다. (계속)

■ 일반세션 1 (사회: 이문호 / 워크인연구소)

한국적 생산방식의 이론적 재구성: 자동차산업의 사례

현대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 발표: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 토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현대자동차 엔지니어의 숙련 성격과 조직역량 변화

- 발표: 조형제 (울산대 사회과학부)
- 토론: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기업 내·외부 네트워크의 준수적 통합: 현대차 부품공급 구조의 역사적 동학

- 발표: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 토론: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 일반세션 2 (사회: 전원근 / 제주대)

국민/인구, 여성, 변방과 중심

'징병제와 '국민'·'인구'의 등급화

- 발표: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 토론: 조은주 (전북대 사회학과)

1980년대 여성 쟁점에 대한 저항연대의 범위

- 발표: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토론: 이정은 (창원대 사회학과)

<본명선언> 표절사건을 통해 본 독립영화 진영의 진부한 연대

- 발표: 박경태 (독립영화감독)
- 토론: 김한상 (아주대 사회학과)

■ 일반세션 3 (사회: 임운택 / 계명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양상과 정치의 재구성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부품사의 대응과 전망: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 토론: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인류세 시대의 돌봄 정치와 커먼즈의 재구성

- 발표: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 토론: 홍찬숙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 발표: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 토론: 홍성태 (고려대 사회학과)

■ 일반세션 4 (사회: 김철식 / 한중연)

도시, 테크놀로지, 교육

산업도시 마산의 쇠퇴

- 발표: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 토론: 조호래 (창원대 사회학과)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

- 발표: 최종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토론: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법적 올바름'에 희생된 '수학적 올바름'

- 발표: 안종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 토론: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당사자들의 경험적 현실과 거리를 둔 채 이론적 사고만으로 현상을 규정하는, 그것조차 변혁(화)의 전망을 잃은 채 되풀이되는 비평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제껏 정리한 논점으로 한정할 수 없는 방대한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백승욱 학회장(중앙대)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이날의 논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계가 이미 도래해버린 정세적 조건 속에서 비판의 형식과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 비판의 종적 연결과 횡적 확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다시 말해 시대-역사적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과 주제와의 연계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관한 토론이었다. 물론, 이 광범한 쟁점에 관한 합의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장과 줌으로 구현된 회의장 안에는 지식인과 대중, 구조와 현실, 운동과 이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비판적 지식인과 지식생산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공감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감대 못지않게 차이도 뚜렷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의 전망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비판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의 다른 편에는, 운동의 우위를 전제로 비판의 불가능성 또는 제한성을 명확히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관점도 있었다. 연구자의 위치성에 관한 성찰에 두는 중요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를 그저 페미니즘이나 질적 연구 등에 국한되는 방법론적 문제로 보는 관점과 비판이 꼭 갖춰야 할 지식생산의 요건으로 이해하는 관점 사이에 확연한 대조가 나타났다. 이날의 토론은 기록을 맡은 관찰자의 역량으로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다채로웠다. 다만, 왜곡의 위험을 무릅쓰고 느낀 바를 거칠게 정리한다면, ‘연구자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성찰하는가’는 그가 생산하는 지식의 성격과 의미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보였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진보’적 지식인들의 실천 역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그들의 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토론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공감했던 바와 같이, 구체적인 쟁점이나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이날의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 ‘비판사회학’의 정체성을 찾는 학회의 고민 또한 그침없이 계속되길 바란다. (끝)

■ 일반세션 5 (사회: 백영경 / 제주대)

여성, 감정노동, 결혼시장

여성의 성인기 출현과 혼인행동의 변화

- 발표: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례관리노동자의 감정노동: 대전시 사례관리노동자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 발표: 최인이, 박오뜸, 우새롬 (충남대 사회학과)
- 토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결혼시장의 문화적 미스매치

- 발표: 조운명 (연세대 사회학과)
- 토론: 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 일반세션 6 (사회: 서찬석 / 중앙대)

이론, 비판, 설명

21세기 초 생태맑스주의 논쟁의 쟁점들: 물질대사 균열 비판과 반비판

- 발표: 이광근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 토론: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니체의 전제 비판: 사회과학의 실재와 인식의 재구성

- 발표: 유윤열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 토론: 김주환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심층-설명적 비판과 실재론적 질적 연구의 가능성

- 발표: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 토론: 이희영 (대구대 사회학과)

■ 기획세션 1 (사회: 최인이 / 충남대)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비판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비판사회학의 재구성: ‘criticism’에서 ‘critique’으로 (박찬중/광운대, 육주원/경북대, 김성윤/경희대, 김주호/경상대)

■ 기획세션 2 (사회: 서동진 / 계원예대)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비판이란 무엇인가

비판의 위기와 위기 비판: 우리시대 비판의 가능성 조건들에 대한 성찰 (김주환 / 동아대)

“비판의 현재: 대중과 지식인의 변화”: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말인가? (이정연 / 서울여대)

대학의 위기와 비판적 지식(인)의 위기 (박치현 / 대구대)

- 토론: 조운명(연세대), 권오용(충남대)

■ 기획세션 3 (사회: 윤상철 / 한신대)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

진보적 사회운동의 미래 그리기(futuring): 비판, 성찰, 그리고 새로운 기획 (임운택 / 계명대)

87년체제에 갇힌 사회운동: 권력동원의 정치적 서사를 넘어 (홍성태 / 고려대)

지식인의 비판과 비판의 쓸모 (추치현 / 서울대)

- 토론: 김동춘(성공회대), 이희영(대구대)

■ 비판의 재구성: 종합토론 (사회: 백승욱 / 중앙대)

- 토론: 조운주(전북대), 박찬중(광운대), 김주환(동아대), 홍성태(고려대)

2021년 정기총회 후기

■ 박찬종 (운영위원장/광운대)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중앙대학교와 zoom 온라인 병행으로 제21회 콜로키움과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콜로키움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쉽게도 현장에는 최소의 인원만이 참석하고 zoom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총회 사전행사로 준비된 제21회 콜로키움은 “코로나 이후 세계와 비판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주로 대학원의 박사과정생들이 자신들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5명의 발표자와 함께 백승욱 회장이 사회를, 그리고 노중기(한신대), 신정아(한림대), 지주형(경남대) 3명의 선배연구자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동열(중앙대)은 “다수결에 대한 믿음으로서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포퓰리즘이 다수제나 대표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제와 대표제의 원칙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인 ‘순수한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민주주의 제도의 역사적 변화와 그와 관련되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질문’을 제기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손애성(고려대)은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라는 제목으로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손애성에 따르면, 흔히 이러한 규제는 사회주의로의 회귀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의 아마존의 수직적 통합화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따라서 ‘거대한 분기’라기보다는 ‘거대한 수렴’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인 “디지털 기술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콜센터 노동의 변화”에서 우새롬(충남대)은 디지털 기술발전과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콜센터 노동양상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외주화, 분리직군화, 자회사화라는 고용형태의 문제, 재택근무화/프리랜서화, 기술대체화, 건강과 산업재해, 노동조합조직화의 곤란 등이 콜센터노동과 관련된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다음면 계속)

유윤열(성공회대)은 “한국사회의 세력: 지식의 생산자와 전달자의 구분, 그리고 대중의 감정이입”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트루스’ 상황에서 집단적 감정작용을 매개로 정치가 ‘세력추구’로 대체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와 연결되는 이러한 현상의 감정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균호(계명대)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속 자동차 부품 산업의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산화(digit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구조의 재편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문제와 지역간 격차, 기업간 격차에 더욱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요인임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2021년 회원 및 회비보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전체회원수가 2020년 말에 비해 78명 증가한 270명(11월 말 현재)이며, 2021년 납부된 회비총액이 22,980,000원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의 2021년 사업보고가 이어졌습니다(우측박스 참조). 백승욱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회계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장은 회계결산을 보고하는 동시에, 작년에 심각한 회계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고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회계 절차와 방법이 도입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 학회의 총자산은 작년 말 기준 25,514,000원 증가한 106,617,825원입니다.

논의안건으로 회계관리방안과 회장선출절차의 개선에 관해 토론했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차차기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 250명 중 81명이 투표하였고(투표율 32.4%), 찬성 7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서동진 회원이 2023년 학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운택 차기(2022년) 회장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끝)

2021년 주요 활동보고

■ 운영위원회

- 콜로키움과 워크숍을 통합하여 4회 진행
- 비판사회학교 3과목 운영 (수강생 총177명)
- 가을학술대회 <비판의 재구성> 3개 세미나팀 운영
- 실무관련 업무는 운영소위가 전담하고 운영위원회는 연구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운영소위 9회, 운영위원회 7회 진행)
- 소식지 4회 발행
- 비판사회학교 강의록(2권) 및 <노동세계의 이해> 출판 준비
- 혁신위원회 활동
- 학회사무실 이전 준비

■ 편집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발간 지원금 1,000만원 수혜
- <경제와사회> 4회 발간(총 투고논문 50편, 게재율 60.4%)
- 저널레터 발간

2023년 차차기 회장선거 당선자



■ 당선자: 서동진 (계원예술대학)

■ 주요약력

- 1999. 03.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 1993. 06.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 책임연구원
- 2007. 09.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 2011. 12. 문화연구학회, 비판사회학회, 문화사회학회 이사
- 2019. 03.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
- 2021. 10. <맑스큐무날레> 집행위원장

■ 주요공약

- 비판적 사회과학의 내실화
- 새로운 연구자 세대와 함께 비판사회학의 가능성 모색
-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하는 조직으로서의 비판사회학회
- 국제주의적 연구 네트워크 구성

2021년 김진균학술상 수상논문

발전주의는 언제 일상이 되었는가?: 도시 중산층 가정성의 확립으로 본 현대정착의 양상과 시간성

〈경제와 사회〉 131호 (2021년 9월)

김명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 연구는 도시 중산층의 생활 세계에서 구현된 현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의 사회적 수용과 확산을 해석한다. 1960~1970년대의 개발연대를 현대(성)의 도래 시기로 인식하는 통념과 다르게 ‘현대적 생활양식’의 정착이란 시각에서의 현대로의 전환이 198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이에 ‘1980년대 도시 중산층 가정’을 초점으로 중산층 가정성의 의미 구조와 이와 맞물린 미시적 사회변동의 양상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산층 가정과 그 근린을 배경으로 형성된 정상적 가족생활에 관한 의미화를 보여주는 ‘발견’적 개념으로 중산층 ‘가정성’을 규정하는 한편, 민영 아파트 분양 광고에 활용된 핵심어들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그 의미의 변천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중산층 가정성은 1980년대 전반 강남권의 중간계급에서 유래해 1990년대 전반에 이르면 전형적인 형태로 확립되는데, 그 요체는 현대화된 교외 주거지의 속성과 계급화된 주거지로서의 고급 지위재적 성격과 지리적 중심성, 새 도시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성형된 중산층 가정성을 모태로 현대화된 도시 생활양식의 전형적 특징들, 이를테면 생활자원과 위신의 획득을 위한 지위 경쟁과 강한 자산 추구 성향, 가족 중심적 사인주의와 도구주의적 ‘아웃-하우스 문화’ 등이 자리 잡는 변화 역시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중산층 가정성의 성형이 현대적 도시 생활의 표준으로서 중산층 생활양식을 공고화하는 변동을 수반했음을 지적한다. 아파트 단지라는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구조된 새로운 가정성에 대한 사회적 선택과 승인을 통해 발전주의적 ‘현대(성)’에 대한 일상적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원문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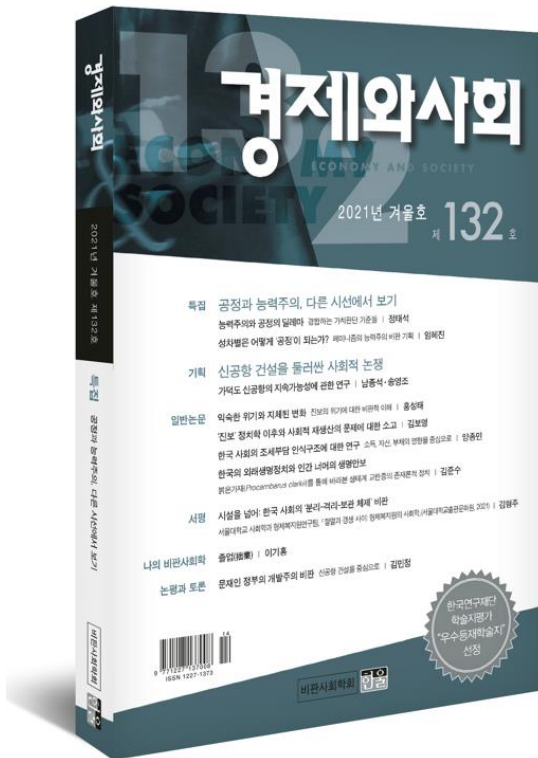
■ 심사평

2021년 비판사회학회 우수논문상은 〈경제와 사회〉 2020년 겨울호부터 2021년 가을호까지 실린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해부터는 기획과 특집논문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총 5편의 논문이 추천을 받았고,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김명수 선생의 "발전주의는 언제 일상이 되었는가?" (김명수/ 2021년 가을호 제131호) 논문이 2021년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1차 심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논문으로, 2차 심사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다른 논문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가 뚜렷하여 비판사회학회가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성에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연구자가 중산층의 생활양식이라는 다소 복잡하고 다각적인 주제를 발전주의라는 주제 속에서 압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쪼록 김명수 선생께서 향후에도 더 좋은 연구와 논문으로 우리 비판사회학회의 동량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이 상을 기쁘게 수여합니다.

〈경제와사회〉 132호(12월 발간) 목차



〈경제와 사회〉 링크

■ 특집: 공정과 능력주의, 다른 시선에서 보기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정태석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엄혜진

■ 기획: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가덕도 신공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남종석·송영조

■ 일반논문

익숙한 위기와 지체된 변화 진보의 위기에 대한 비판적 이해

홍성태

'진보' 정치학 이후와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소고

김보영

한국 사회의 조세부담 인식구조에 대한 연구
소득, 자산, 부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종민

한국의 외래생명정치와 인간 너머의 생명안보

붉은가재(Procambarus clarkii)를 통해 바라본 생태계 교란종의 존재론적 정치

김준수

■ 서평

시설을 넘어: 한국 사회의 '분리-격리-보관 체제' 비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절멸과 강생 사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김형주

■ 나의 비판사회학

졸업(拙業)

이기홍

■ 논평과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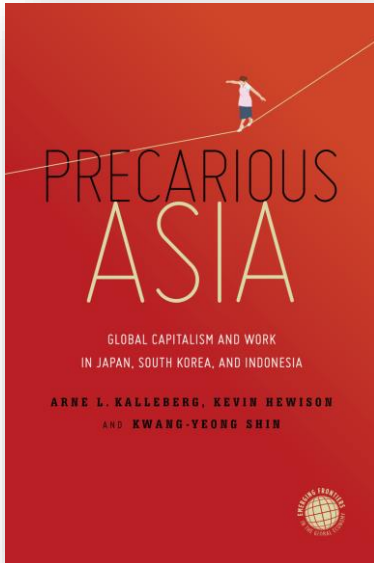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개발주의 비판 신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김민정

『경제와 사회』 132호는 DBpia를 통해 12월 중순부터 원문공개됩니다.

※ 『경제와 사회』는 회비납부 회원들에 한하여 원문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논문원문이 포함된 이메일 저널레터로 우선 송부됩니다.

회원신간소개



Precarious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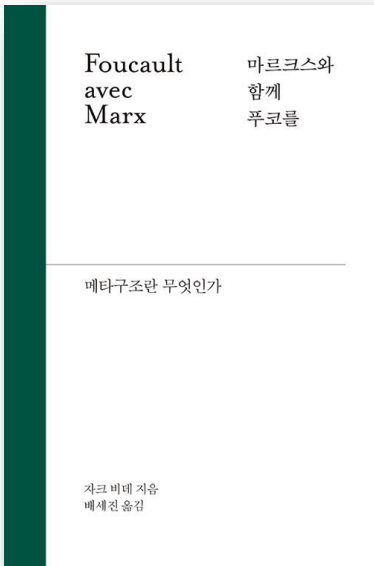
Global Capitalism and 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Indones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년 12월, 248쪽

신광영 외 (중앙대 사회학과)

이 책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일본,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불안정 노동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한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의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며,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이다. 아시아 연구, 비교정치경제학, 사회계층과 불평등, 노동사회학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3개국의 불안정 노동의 동학을 비교 분석하여, 불안정 노동의 정도와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거시적인 구조적 결과와 중위 수준의 노사관계 및 개별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미시 수준의 결과를 연계하여, 불안정 노동을 형성하는 데 작동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역사적, 제도적 분석과 자본주의 정치경제와 계급관계를 종합하는 분석을 제시한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불안정 노동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만성적인 빈곤과 생계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목차링크](#)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 메타구조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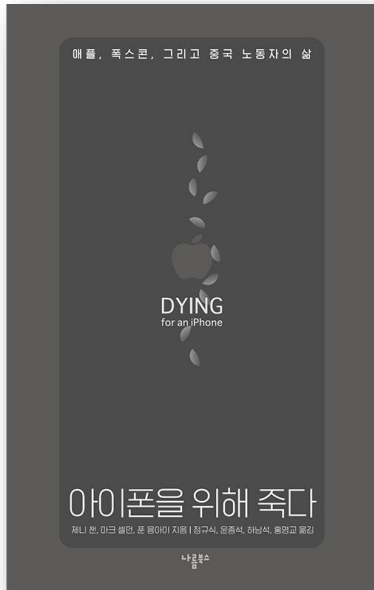
생각의힘, 2021년 12월, 448쪽

자크 비데 저 / 배세진 (파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 역

이 책은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는 둘 사이의 상보성을 인지하는 것, 둘 사이의 잠재적인 마주침의 지점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가 탐험하지 않고 내버려둔 착취의 어떠한 측면에서 푸코를 추수하는 것, 그리고 마르크스의 것이었던 전체적 관점 내에 푸코의 작업들을 재가입하는 것이다. 전작 『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 푸코와 함께 마르크스를』(오월의봄, 2020)이 마르크스에서부터 출발해 푸코에게로 도달하는 방식으로 푸코와 마르크스를 결합했다면, 이 책은 푸코에서부터 출발해 마르크스에게로 도달하는 방식으로 푸코와 마르크스를 결합한다. 요컨대 전작이 푸코의 사상을 배경으로 삼고 메타-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하는 저작이라면, 이 책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배경으로 삼고 푸코의 철학을 연구하는 저작이다. 이를 통해 비데는 푸코-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 아래 결국 메타구조론 그 자체를 완성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아이폰을 위해 죽다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노동자의 삶 나눔북스, 2021년 10월, 410쪽

Jenny Chan, Mark Selden, Pun Ngai 지
윤종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정규식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외 역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전자 제국’ 폭스콘 공장의 노동 실태를 담은 르포다. 아이폰의 독점적인 최종 제조업체인 폭스콘은 경제 대국이 되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부합해 빠르게 성장했고, 중국 안에서만 40곳 이상의 제조단지를 운영하며 1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거대 고용주다. 폭스콘에서 노동자 자살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세 연구자가 중국 각지의 폭스콘 제조 현장에 잠입했고, 수년간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공장 안 실상을 파헤쳤다. 저자들은 노동자들이 기숙사 건물에서 몸을 던지게 만든 잔혹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며 각국 정부나 초국적기업들이 이에 관해 어떤 책임을 이행했는지 질문한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다는 막연한 관념을 부수는 이 연구 작업은 눈앞의 전자제품이 어떤 고통으로 만들어졌는지 직시하자고 말한다.

[목차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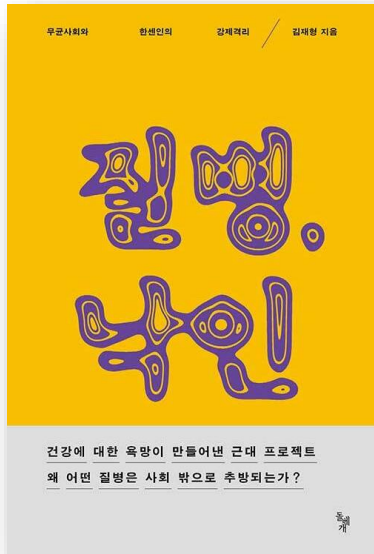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의 혁명 기레기의 오만과 깨시민의 자만을 넘어 시대의창, 2021년 9월, 312쪽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저자는 특유의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유려한 필체로 2020년대의 시대정신을 밝히기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미디어 읽기의 혁명”을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나갈 것을 역설한다. 촛불혁명으로 닳을 높이 올린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은 현재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 밝혔던 높은 포부와 큰 이상은 실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이를 밝히고자 긴 시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오만한 세력들, 특히 권언유착과 신방북합체를 통해 사회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왜곡했던 미디어왕국 적폐 “기레기”들의 역사를 복기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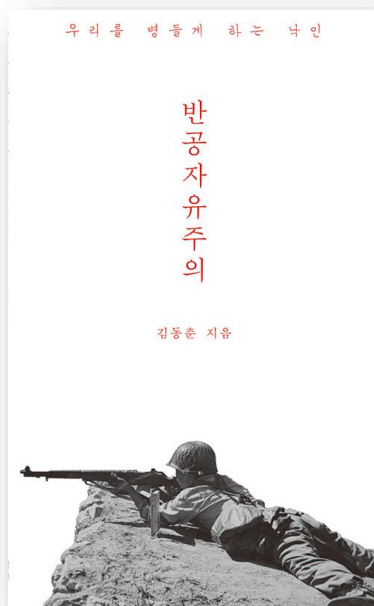
질병, 낙인 무균사회와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2021년 11월, 480쪽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 세계 환자와 사망자 수가 실시간 공유되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과 통제 아래 살아가는 상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불러일으킨 질병에 대한 공포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낯선 코로나 시국이 실은 100여 년 전 한국 사회에 한센병이 처음 발병했던 상황과 오버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책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이 등장한 이후 의학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한 사회가 '정상성'을 규정한 후, 특정 질병과 환자를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촘촘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과 혐오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게 하기도 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목차링크](#)



반공자유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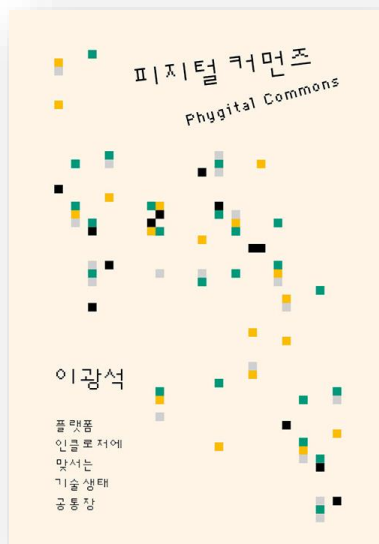
필요한책, 2021년 11월, 136쪽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이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사고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정했으며 사회를 조직했던 그 이념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한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온갖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이 일으키는 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고 빈부격차의 극심화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폭락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미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현대사의 감춰진 비극들을 연구했으며 사회적 화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는 그러한 위기의 열쇠가 된 하나의 거대한 유령을 소환한다. 그것이 바로 '반공자유주의'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피지탈 커먼즈 플랫폼 인클로저에 맞서는 기술생태 공론장

갈무리, 2021년 10월, 400쪽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학과)

오늘날 플랫폼자본주의는 디지털계의 기술 논리를 갖고 물질계의 지형과 배치를 좌우하는 역전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메타버스'에 바치는 숭고와 찬양은 플랫폼 자본이 주도할 피지탈계의 인클로저를 알리는 서곡에 해당한다. 이 책은 플랫폼 질서에 맞서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해 그리고 대안 실천의 무기력을 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커먼즈'(공동장) 운동을 제안한다. '인류세' 국면 생태 커먼즈의 구성 논의는 동시대 가장 화급한 쟁점이다. 특히 이 책은 생태 커먼즈의 구성에 있어서 인간 기술과 못 생명과의 공존 문제를 탐구한다. 기술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지구공학적 낙관론이나 환경근대주의적 기후위기 해결책은 선부르고 위험하다. 장기적인 생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한 자원 공동체가 중심이 된 생태 커먼즈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목차링크](#)



물음을 위한 물음 2010년대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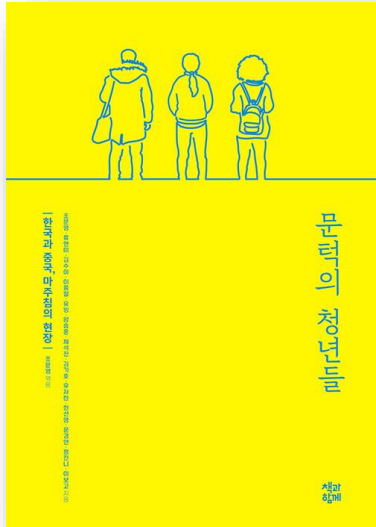
갈무리, 2021년 9월, 320쪽

윤여일 (제주대 사회학과)

물음을 위해 왜 물음이 필요한가. 2010년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2010년대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와 달리 명명 자체가 어색할 만큼 윤곽이 그려지지 않는 시대다. 만일 통상의 정치사나 사회사가 아닌 정신사를 상정해본다면 2010년대는 사고가 퇴행하고 언어가 퇴화하는 시대였는지 모르며, 그것이 2010년대라는 시대상이 모호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후쿠시마 사태, 세월호 참사, 촛불광장,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난민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우리가 2010년대에 접한 사회적 사건들을 두고 매스미디어에서 등장하는 논자들은 기성의 시각과 언어로써 나름의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견해들은 서로 각축하면서도 어떤 소실점을 향해 논점들을 배치하여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은 질문을 던진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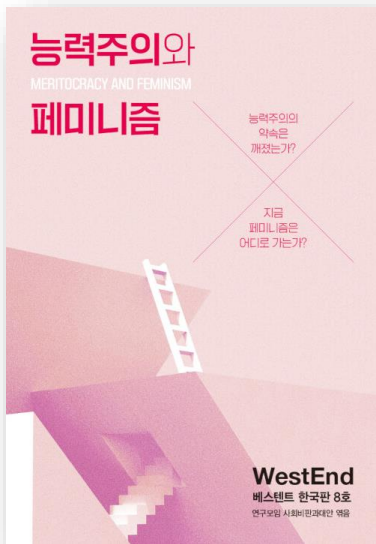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책과함께, 2021년 10월, 420쪽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외

한국과 중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그 다른 듯 비슷한 삶의 모습을 현장에서 들여다본다. 한중청년들의 삶의 서사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제(교육, 취업과 노동, 창업, 주거와 지역, 소비, 연애와 결혼, 인터넷문화, 대안적 생애기획)를 통해 현장연구를 통해 살폈다. 국경이라는 주권적 경계뿐 아니라 여러 다른 경계와 씨름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다채로운 궤적과 실천의 양상을 만날 수 있다. 문턱을 딛고 규범화된 세계 안에 무사히 안착하기 위해서든, 문턱 너머 세계의 풍경을 바꿔내기 위해서든, 저자들이 만난 한중청년들은 제 몸과 일터, 삶터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수시로 깜빡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다.

목차링크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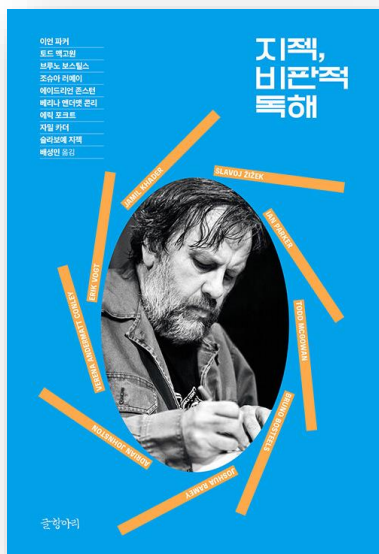
사월의책, 2021년 9월, 284쪽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외 저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홍찬숙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외 역

능력주의의 약속은 깨졌는가? 지금 페미니즘은 어디로 가는가? 이 책은 '사회적 계층 상승과 몰락'이라는 주제와 '디지털 페미니즘의 정치적 지형'이라는 주제를 한데 엮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이슈를 심도 깊게 탐구한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과 혐오 정서 뒤에는 능력주의 약속의 붕괴라는 현실이 숨어 있다. 사회적 계층 사이에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면 계층 상승에 대한 '투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빈곤의 대물림, 세대 간 지위 안정화, 금융계급의 사회적 구별짓기 등과 같은 사례들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을 통해 능력주의 이슈를 다각도로 해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정치, 남성-약자 서사 구축, 대립동 여성사건, 여성리더 담론 등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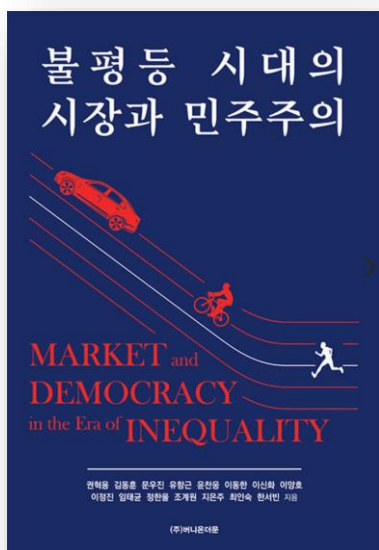
지적, 비판적 독해

글항아리, 2021년 11월, 384쪽

이언 파커 외 저 / 배성민 (경북대 철학과) 역

철학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 8명의 학자가 비평하고 마지막으로 지적이 그에 답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거장이지만 동시에 당대의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꼽히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년 발표되는 그의 저작들은 반복되는 데다 체계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식의 저술은 반발을 사기도 하지만, 이 책의 필진은 지적에 대한 이런 비판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라캉을 전유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해결을 재장전하고 있는 지적 자신이 이런 이론 작업은 '열려 있고, 부정적이며, 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목차링크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버니온더문, 2021년 9월, 404쪽

조계원 (고려대 정치연구소) 외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와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과 수준이 다르며, 또한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상이한 정치제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는 20세기 이후의 불평등 지표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반부엔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중반부엔 난민 등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을 들여다본다.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의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 연구를 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자.

목차링크

신입회원

(9월~12월)

- 정회원 김민아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고병진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미나 (제주대 사회학과) 이은채 (중부대)
 박동열 (중앙대 사회학과) 우새롬 (충남대 사회학과)
 최종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정구현 (경상대)
- 준회원 박설안 (경북대 경제학과 대학원) 정용래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 기관회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회원현황

(12월 20일 현재)

- 총회원 268명 (정회원 242명 / 특별회원 11명 / 준회원 12명 / 기관회원 3개)
-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 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회원 회비: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9월~12월)

- 9월 9일 운영소위원회 8차 회의
- 9월 17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9월 24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10월 1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10월 2일 가을학술대회 준비 전체 세션 회의
- 10월 7일 제20회 콜로키움
- 10월 8일 5차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10월 15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 10월 29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11월 4일 운영소위원회 9차 회의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11월 12일 ~ 13일 2021년 비판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
- 11월 27일 6차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 12월 11일 제21회 콜로키움
정기총회

**<경제와사회>가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 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 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 (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근조기 대여

운영위원회에서 학회근조기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근조기가 필요한 회원께서는 학회사무실(02-3148-6220)로 연락주시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학회가 부담합니다.

백색수술



2021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백승욱(중앙대)	부회장 임운택(계명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운영위원장 박찬중(광운대)	연구위원장 조은주(전북대)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연구위원 김명수(서울대)	연구위원 김태형(방통대)	연구위원 김주호(경상대)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연구위원 백영경(제주대)	연구위원 이정연(서울여대)
연구위원 이정은(창원대)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연구위원 추지현(서울대)
연구위원 황선재(충남대)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정책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정책위원 이태정(성공회대)	정책위원 홍성태(고려대)
정책위원 옥주원(경북대)	대외협력위원 박치현(대구대)	대외협력위원 원재연(연세대)
대외협력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외협력위원 이철(노동권익센터)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임운택(계명대)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
편집위원 박명준(노동연구원)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편집위원 이상철(성공회대)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주은우(중앙대)
편집위원 최현(제주대)	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편집위원 박해남(원광대)
편집위원 이향아(경상대)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기원)	편집위원 김명희(경상대)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편집위원 이소훈(경북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이예진(서울대)	

■ 이사회

〈당연직 이사〉	이희영(대구대)	백승욱(중앙대)	임운택(계명대)
	최인이(충남대)	박찬중(광운대)	조은주(전북대)
〈선출직 이사〉	이영희(가톨릭대)	오유석(성공회대)	윤상철(한신대)
	조효래(창원대)	이주희(이화여대)	추지현(서울대)
	정영철(서강대)	이향우(충북대)	최현(제주대)
	지주형(경남대)	신경아(한림대)	정철희(전북대)
	윤충로(한중연)	김철식(한중연)	
〈감 사〉	공제욱(상지대)	조형제(울산대)	